

대학생들의 건강관련 요인이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와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

신선영 · 정라나*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The Preference and Frequency of Beverages related to Health Factor in University Students

Sun-Young Shin · Lana Chu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Inh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health related factors on the preference and frequency of intake of coffee and traditional beverages among 280 university students (128 males and 152 females) who were residing in Incheon area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ale students of over weight and obese were more than fe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of under weight were more than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were interested in weight control and had an experience in weight control more than male students. 2. The group who was much interested in weight control preferred green tea, yuja tea and dunggulre tea. The group who was much interested in health when drink beverages preferred green tea, ginseng tea, dunggulre tea, vinegar drinks and water but didn't prefer coffee. 3. The frequency of intake of green tea is high in the group who had an experience in weight control. And the frequency of intake of honey tea was high in the group who drank alcohol almost every day. Coffee intake was the highest among beverages in smokers and water intake was the highest among beverages in nonsmokers.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as an interest in health is higher, the preference and frequency of intake of coffee was low whereas those who intake of traditional beverages was high in general.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beverages, Preference, Frequency of intake, Weight control, Health factor

1. 서 론

음료는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모든 액체의 총칭이며 물을 비롯하여 인간이 갈증해소나 기호충족 등을 위해 마시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료는 음식과 함께 불가결한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먹거리와 마실 거리는 그 나라의 기후와 자연환경, 그 민족의 사회·역사적 배경, 생활습관과 문화를 반영하며 서민생활의 지혜가 작용하여 형성, 발달되어 왔다(Cho 2001; Lee 2005). 특히 음료는 대표적 기호식품으로 갈증해소, 심리적 위안, 원활한 분위기 조성, 건강 보조기능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Park 1999).

현대인들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음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활방식의 변화와 식생활 습관에 따라 현대인은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를 섭취하고 있다(Kim 2004). 일상적인 음료 섭취에서도 소비자는 천연의 맛과 향을 원하며 자신의 기호에 맞으면서 건강에

도 좋은 음료를 선택하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Well-being life는 건강 음료의 소비량 증가와 함께 음료시장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Han & Rho 2004; Lee 2001).

우리 식생활 중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음료 소비의 증가는 주로 커피나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중심의 소비형태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음료 개발을 촉진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기능성 음료와 우리 전통적인 음청류를 이용한 음료 등이 개발되었다(Kim 등 1998). 과일·채소음료, 식이성 섬유음료, 스포츠음료, 쌀음료 등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근래에는 식초음료, 보리·옥수수 등 혼합곡물 음료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간편성과 기호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은 도처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로부터 손쉽게 다양한 음료를 얻을 수 있으며,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결식, 야식, 간식의 과다섭취 및 잦은 외식 등 식습관이 불량하므로 이들에게 바람직한 음료 선택은 그들의 영양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Ha 등 1999). 최근 국민 비만 이환율이 점점 높아지

* Corresponding author : Lana Chu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ha University, 253 Yonghyun-dong Nam-k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60-8127 Fax: 82-32-864-3373 E-mail: dearlana@inha.ac.kr

고 그 중 성장기 학생들의 비만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분석해 볼 때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등을 통한 지방과 당분의 섭취증가가 원인 중 하나라는 사회적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Chung 등 2004). 대학생들의 영양상태는 성인이 되어서의 체형 및 건강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인기로의 과도기적 연령으로서 이 시기의 식습관은 성인기의 식습관 및 식생활 태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Song 1999). 이들은 기존세대들과 비교하여 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소득을 사용하므로 이들이 기업에게 주는 전략적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Chaib 1994). 외식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커피 전문점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Jung 2006a), 이제는 젊은 계층에서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Jung 2006b). 그러나 현재 소비자들의 구매 태도, 의식, 라이프스타일 등이 변화하고 있으나 젊은 층의 욕구와 기호에 맞는 우리 전통음료의 개발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요인이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와 섭취빈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료에 대한 대학생의 기호도와 섭취빈도를 밝힘으로써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인천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자의 설문지(Lee 2001)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 전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7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일부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인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2007년 3월 13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 310부를 배포하고 총 292부를 회수하여 불완전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280부를 통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건강관련 사항,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와 섭취빈도로 구성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로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사항으로 성별, 연령, 신장, 체중, 용돈, 음료비용을 조사하였다. 건강관련 사항은 운동 횟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 음료섭취 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상태,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의 복용 여부, 술 마시는 횟수, 담배

등을 측정하였다. 음료의 기호도는 매우 싫어한다(1점), 싫어한다(2점), 보통(3점), 좋아한다(4점), 매우 좋아한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섭취빈도는 거의 안 마신다(1점), 월 2~3회(2점), 주 1회(3점), 주 2~3회(4점), 하루 1회(5점), 하루 2~3회(6점), 하루 4회 이상(7점)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통계 분석 방법

통계 분석은 SPSS Win(12.0)을 사용하였다.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관련 요인에 따른 음료의 기호도와 섭취빈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t-test), 상관분석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은 Duncan의 다중 범위 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 280명 중 남자는 152명(54.3%), 여자는 128명(45.7%)이었다. 평균 연령은 남자 23.08±2.9, 여자 20.93±1.7이었으며, 연령 분포를 보면 21~24세는 46.4%, 20세 이하는 33.6%, 25세 이상은 20.0% 순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신장은 남학생이 175.5cm, 여학생은 162.4cm였으며, 체중은 남녀가 각각 평균 70.1kg과 52.3kg으로 나타났다. 이는 Ha 등(1999)의 선행 연구에서 남녀 평균 신장이 172.9cm, 162.5cm이었으며, 평균 체중은 64.1kg, 50.8kg으로 조사되었다.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면 신장과 체중이 과거에 비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용돈은 한 달에 20~30만원 미만(39.6%)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0~40만원 미만(25.4%), 10~20만원 미만(18.2%), 40~50만원 미만(6.1%), 10만원 미만(6.1%), 50만원 이상(4.6%)을 사용한다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용돈 중 음료에 지출하는 비용은 한 달에 1~4만원 미만(51.1%), 1만원 미만(28.9%), 4~7만원 미만(15.4%), 7~10만원 미만(4.3%), 10만원 이상(0.4%) 순으로 나타났다. Kim(1999)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한 달 용돈이 98년 기준 20~30만원 미만이 24.2%, 음료에 지출하는 비용은 5천원 이하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과거에 비해 대학생들의 용돈이 증가하였으며, 무엇보다 음료에 지출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물가상승에 인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예전에 비해 우리 식생활 중에서 음료의 소비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Group	N	%
Gender	Male	152	54.3
	Female	128	45.7
Age (yrs)	≤20	94	33.6
	21-24	130	46.4
	≥25	56	20.0
Pocket money (10,000 Won)	<10	17	6.1
	10-< 20	51	18.2
	20-< 30	111	39.6
	30-< 40	71	25.4
	40-< 50	17	6.1
	≥50	13	4.6
Cost of beverages (10,000 Won)	< 1	81	28.9
	1-< 4	143	51.1
	4-< 7	43	15.4
	7-< 10	12	4.3
	≥10	1	0.4

2.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사항

건강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차 분석한 결과 BMI, 운동횟수, 운동시간, 체중조절 관심, 체중조절 시도 경험, 흡연의 항목에서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BMI(Body Mass Index)는 조사 대상자들이 직접 기입한 신장과 체중으로 BMI를 계산한 결과 남자는 정상 체중(55.9%), 과체중(28.9%), 비만(13.2%), 저체중(2.0%)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정상 체중(70.3%), 저체중(23.4%), 과체중(5.5%), 비만(0.8%) 순으로 조사되어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다($p < 0.001$). You(1997)의 선행 연구와 같이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과체중과 비만이 많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저체중이 많은 결과가 나타났다. 현대 사회에서 마른 체형의 여성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사회문화적 관념에 따라 여성들 사이에서 체중조절이 빈번히 시도(Kim 등 1998)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운동 횟수 및 운동시간을 살펴보면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가의 질문에서 남자는 주 1-2회(44.1%)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하지 않음(30.9%), 주 3-4회(11.2%), 매일(9.9%), 주 5-6회(3.9%)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여자는 하지 않음(60.2%)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 1-2회(23.4%), 주 3-4회(12.5%), 매일(2.3%), 주 5-6회(1.6%)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운동을 적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이는 Cho & Kang(2004)의 선행 연구에서 남학생의 34.6%, 여학생의 56.9%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운동시간에 대한 질문에서도 남자는 1-2시간 미만(45.7%), 0분(30.9%), 30분-1시간 미만(28.6%), 2-3시간 미만(12.4%), 30분 미만(10.5%), 3시간 이상(2.9%) 순으로 응답했고 여자는 0분(60.2%), 30분-1시간 미만(49.0%),

30분 미만(27.5%), 1-2시간 미만(19.6%), 2-3시간 미만(3.9%), 3시간 이상(0.0%) 순으로 응답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운동시간이 많게 나타났으며,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건강 관련 태도 및 습관에 대한 항목에서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않음(38.6%), 보통(34.6%), 만족함(16.1%), 전혀 만족하지 않음(8.9%), 매우 만족(1.8%)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 질문에서 남자는 관심 있음(52.0%), 보통(17.8%), 관심 없음(15.1%), 매우 관심 있음(9.9%), 전혀 관심 없음(5.3%) 순으로 응답했고 여자는 관심 있음(52.3%), 매우 관심 있음(28.9%), 보통(11.7%), 관심 없음(6.3%), 전혀 관심 없음(0.8%) 순으로 응답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체중조절에 대해 관심이 더 높다고 응답하여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Kim 등(1997)의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음료를 마실 때 이 음료가 건강과 영양 면에서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한 관심도는 전체적으로 보통(28.9%)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금 관심 있음(26.4%), 관심 있음(26.1%), 전혀 관심 없음(12.1%), 매우 관심 있음(6.4%) 순으로 응답해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건강함(47.5%), 병은 없지만 건강한 편은 아님(44.3%),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음(6.4%), 질병이 있음(1.8%)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평소의 식사내용에 대한 항목에서도 전체적으로 육·채식 혼합(83.2%), 육식 위주(10.4%), 채식 위주(6.4%) 순으로 응답했으며,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체중 조절을 시도해 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남자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9.2%, 여자는 78.9%로 여자가 더 높게 응답해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Kim 등(1997)과 Kim 등(1998)의 선행 연구에서 각각 78.5%, 78.2%의 여대생이 체중 조절을 시도한 적이 있다라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보약 등을 복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70.7%로 나타났으며,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Lee 등(2001)의 연구에서는 36.7%가 복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술과 담배의 항목을 살펴보면 술을 마시는 횟수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한 달에 1-4회(55.7%), 일주일에 2-3회(23.2%), 일년에 4-11회(12.5%), 전혀 마시지 않음(6.4%), 거의 매일(2.1%), 매일(0.0%)의 순으로 응답해 남녀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Kim(1999)의 선행 연구에서 연간 음주율이 남녀 97%로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흡연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85.7%로 높

<Table 2> Factors related to health by gender N (%)

Variables	Male	Female	Total	χ^2 -value
Obesity index				
- under weight(BMI<18.5)	3(2.0)	30(23.4)	33(11.8)	64.69***
- normal(BMI18.5-22.9)	85(55.9)	90(70.3)	175(62.5)	
- over weight(BMI 23-24.9)	44(28.9)	7(5.5)	51(18.2)	
- obese(BMI ≥ 25)	20(13.2)	1(0.8)	21(7.5)	
Exercise				
- never	47(30.9)	177(60.2)	124(44.3)	29.56***
- 1-2times/week	67(44.1)	30(23.4)	97(34.6)	
- 3-4times/week	17(11.2)	16(12.5)	33(11.8)	
- 5-6times/week	6(3.9)	2(1.6)	8(2.9)	
- everyday	15(9.9)	3(2.3)	18(6.4)	
Exercise time				
- 0minutes	47(30.9)	77(60.2)	124(44.3)	42.29***
- <30minutes	11(10.5)	14(27.5)	25(16.0)	
- 30minutes ~ <1hour	30(28.6)	25(49.0)	55(35.3)	
- 1hour ~ <2hour	48(45.7)	10(19.6)	58(37.2)	
- 2hour ~ <3hour	13(12.4)	2(3.9)	15(9.6)	
- ≥ 3hour	3(2.9)	0(0.0)	3(1.9)	
Satisfaction on body shape				
- Never satisfied	13(8.6)	12(9.4)	25(8.9)	5.08
- Not satisfied	54(35.5)	54(42.2)	108(38.6)	
- Average	51(33.6)	46(35.9)	97(34.6)	
- satisfied	30(19.7)	15(11.7)	45(16.1)	
- much satisfied	4(2.6)	1(0.8)	5(1.8)	
Interest in weight control				
- Never interested	8(5.3)	1(0.8)	9(3.2)	24.55***
- Not interested	23(15.1)	8(6.3)	31(11.1)	
- Average	27(17.8)	15(11.7)	42(15.0)	
- interested	79(52.0)	67(52.3)	146(52.1)	
- much interested	15(9.9)	37(28.9)	52(18.6)	
Interest in health when drink beverages				
- Never interested	24(15.8)	10(7.8)	34(12.1)	9.11
- A little interested	35(23.0)	39(30.5)	74(26.4)	
- Average	48(31.6)	33(25.8)	81(28.9)	
- interested	39(25.7)	34(26.6)	73(26.1)	
- much interested	6(3.9)	12(9.4)	18(6.4)	
Self-recognition health status				
- healthy	78(51.3)	55(43.0)	133(47.5)	2.39
- no disease but not healthy	61(40.1)	63(49.2)	124(44.3)	
- seem to have a disease	10(6.6)	8(6.3)	18(6.4)	
- have a disease	3(2.0)	2(1.6)	5(1.8)	
Type of meal				
- incline to meat	16(10.5)	13(10.2)	29(10.4)	1.84
- incline to vegetable	7(4.6)	11(8.6)	18(6.4)	
- mix	129(84.9)	104(81.3)	233(83.2)	
Experience in weight control				
Yes	90(59.2)	101(78.9)	191(68.2)	12.43***
No	62(40.8)	27(21.1)	89(31.8)	
Nutritional Supplements etc.				
Yes	43(28.3)	39(30.5)	82(29.3)	0.16
No	109(71.7)	89(69.5)	198(70.7)	
Number of drinking alcohol				
- never drink	8(5.3)	10(7.8)	18(6.4)	1.68
- 4-11times/year	19(12.5)	16(12.5)	35(12.5)	
- 1-4times/month	83(54.6)	73(57.0)	156(55.7)	
- 2-3times/week	39(25.7)	26(20.3)	65(23.2)	
- almost everyday	3(2.0)	3(2.3)	6(2.1)	
- everyday	0(0.0)	0(0.0)	0(0.0)	
Smoking				
Yes	36(23.7)	4(3.1)	40(14.3)	23.99***
No	116(76.3)	124(96.9)	240(85.7)	
Total	152(54.3)	128(45.7)	280(100.0)	

***p<0.001

게 나타났으며,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자가 23.7%, 여자가 3.1%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나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는 Yang 등(2004)의 연구에서 흡연율이 남학생 69.5%, 여학생 9.0%로 남학생의 흡연율이 높은 것은 일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흡연율이 선행 연구보다 남녀 모두 더 낮게 나타났다.

3. 건강관련 요인과 음료에 대한 기호도 간의 상관관계

성별에 따라서 건강관련 요인과 음료에 대한 기호도 간의 상관 관계를 보면 <Table 3>과 같다. 남자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꿀차(p<0.05)에 대한 기호도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자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식혜(p<0.01)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이 클수록 남자는 음료의 기호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는 등굴레차(p<0.05), 쌀음료(p<0.05)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은 관심도가 클수록 남자는 유자차(p<0.05), 미숫가루(p<0.05)의 기호도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여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료를 마실 때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남자는 커피(p<0.01)의 기호도는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등굴레차(p<0.01), 식초음료(p<0.01), 생수(p<0.01)에 대한 기호도는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는 녹차(p<0.05), 등굴레차(p<0.01)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술 마시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남자는 커피(p<0.01)에 대한 기호도는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수정과(p<0.05)와 대추음료(p<0.01)의 기호도는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자는 대추음료(p<0.05)에서만 기호도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남자는 녹차(p<0.05)의 기호도는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쌀음료(p<0.05)의 기호도는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식초음료(p<0.05)의 기호도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건강관련 요인과 음료에 대한 섭취빈도 간의 상관관계

성별에 따라서 건강관련 요인과 음료에 대한 섭취빈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Table 4>와 같다. 여자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대추음료(p<0.01)에 대한 섭취빈도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이 클수록 남자는 대추음료(p<0.05)의 섭취빈도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여자는 녹차(p<0.01)에 대한 섭취빈도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은 관심도가 클수록 여자는 녹차(p<0.01), 식초음료(p<0.05), 생수(p<0.05)의 섭취빈도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남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음료를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reference of beverages and health related factors

Variables	Obesity index		Satisfaction on body shape		Interest in weight control		Interest in health when drink beverages		Number of drinking alcohol		Exercis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Coffee	-0.061	-0.003	0.049	-0.017	-0.073	0.067	-0.231**	-0.095	0.258**	-0.042	0.083	-0.083
Green tea	-0.047	0.127	0.046	-0.081	0.138	0.092	0.141	0.186*	-0.018	0.030	0.173*	-0.125
Black tea	-0.062	0.103	0.050	-0.003	0.147	0.002	0.075	0.045	-0.008	0.067	0.054	0.061
Sikhye	0.049	0.242**	-0.033	-0.018	-0.012	0.118	-0.086	0.023	-0.031	-0.067	-0.055	0.026
Sujeonggwa	-0.050	0.127	0.108	0.011	0.051	0.123	0.071	0.150	-0.160*	-0.080	0.038	-0.022
Yuja tea	-0.012	0.087	0.104	-0.005	0.206*	0.053	0.114	0.124	-0.015	-0.141	0.146	-0.076
Ginseng tea	-0.110	-0.011	-0.002	0.133	0.155	-0.007	0.150	0.065	-0.081	-0.148	0.039	-0.068
Dunggulre tea	0.065	-0.082	0.039	0.203*	0.044	0.045	0.274**	0.287**	-0.057	-0.076	0.027	0.166
Yulmu tea	0.047	-0.020	0.045	0.034	0.132	-0.069	-0.043	0.036	-0.086	-0.127	0.130	0.068
Misugaru	0.021	0.062	-0.084	0.032	0.208*	-0.023	0.052	0.033	-0.113	-0.031	0.056	0.045
Vinegar drinks	-0.128	0.133	0.110	-0.027	0.126	0.121	0.217**	0.122	-0.144	-0.119	-0.014	0.195*
Grain drinks	-0.068	0.054	-0.062	0.087	0.128	-0.104	0.102	-0.026	0.015	0.006	0.001	0.034
Maesil drinks	-0.002	0.140	0.082	-0.001	-0.002	0.058	-0.071	0.058	0.111	0.057	0.016	0.152
Honey tea	-0.179*	-0.022	0.056	0.173	0.063	-0.124	-0.010	0.029	0.008	-0.091	-0.011	0.086
Rice drinks	0.002	0.074	-0.059	0.206*	0.014	-0.021	-0.010	0.022	-0.125	-0.041	-0.208*	0.126
Jujube drinks	-0.086	0.014	0.099	0.105	0.052	0.050	0.124	0.034	-0.210**	-0.220*	-0.150	0.118
Water	0.025	0.008	0.076	0.014	-0.008	0.055	0.209**	0.093	0.093	0.158	0.021	0.094

*p<0.05, **p<0.01

<Table 4>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requency of intake on beverages and health related factors

Variables	Obesity index		Satisfaction on body shape		Interest in weight control		Interest in health when drink beverages		Number of drinking alcohol		Exercis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Coffee	0.045	-0.024	0.082	-0.006	-0.066	0.048	-0.131	-0.190*	0.162*	-0.062	-0.055	-0.064
Green tea	-0.015	0.146	0.136	-0.263**	0.141	0.259**	0.218**	0.127	-0.201*	0.092	0.156	0.076
Black tea	-0.089	0.025	0.025	0.000	0.131	0.004	0.149	0.218*	-0.077	0.066	0.029	0.055
Sikhye	-0.024	-0.025	-0.015	0.065	0.061	0.036	-0.021	0.083	-0.051	0.164	0.029	0.072
Sujeonggwa	-0.059	0.038	0.054	-0.002	0.023	0.040	0.121	0.054	-0.019	0.116	-0.035	0.127
Yuja tea	-0.079	-0.006	0.063	-0.048	0.075	-0.053	0.103	0.152	-0.143	-0.015	-0.012	0.060
Ginseng tea	-0.145	-0.060	0.017	0.032	0.027	0.069	0.133	0.172	0.083	0.156	0.092	0.077
Dunggulre tea	0.103	-0.149	0.085	0.088	0.042	0.051	0.276**	0.139	0.002	0.010	-0.018	0.080
Yulmu tea	0.118	-0.009	0.108	-0.075	0.096	0.012	0.071	0.013	-0.098	-0.026	-0.084	-0.068
Misugaru	0.071	-0.036	0.030	0.062	0.062	0.021	0.105	0.067	0.057	0.027	0.037	0.080
Vinegar drinks	-0.140	0.166	0.117	-0.040	-0.004	0.187*	0.160*	0.176*	-0.129	-0.089	0.092	0.157
Grain drinks	0.025	-0.065	0.050	-0.071	-0.040	0.076	0.153	0.067	0.086	0.114	0.052	-0.041
Maesil drinks	0.108	-0.118	0.054	-0.030	0.073	-0.042	0.067	0.190*	0.050	0.145	-0.049	0.051
Honey tea	0.005	-0.109	0.024	0.060	-0.012	-0.057	0.058	0.225*	0.034	0.133	-0.051	0.070
Rice drinks	0.003	0.037	0.065	0.061	0.047	-0.029	0.084	0.099	0.030	0.103	-0.086	0.034
Jujube drinks	-0.093	-0.181*	0.186*	0.095	0.012	-0.047	0.120	0.186*	-0.107	-0.112	-0.036	-0.014
Water	-0.017	0.036	0.084	-0.081	0.018	0.214*	0.124	0.146	0.049	0.089	-0.042	0.085

*p<0.05, **p<0.01

마실 때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남자는 녹차(p<0.01), 둥굴레차(p<0.01), 식초음료(p<0.05)의 섭취빈도는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자는 커피(p<0.05)에 대한 섭취빈도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홍차(p<0.05), 식초음료(p<0.05), 매실음료(p<0.05), 꿀차(p<0.05), 대추음료(p<0.05)에 대한 섭취빈도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술 마시는 횟수

에 따라 여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자는 술 마시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커피(p<0.05)에 대한 섭취빈도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녹차(p<0.05)의 섭취빈도는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운동과 음료의 섭취빈도 간에는 기호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보인 것과 달리 섭취빈도에서는 남녀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음료의 음용 실태

1) 음료의 기호도와 섭취빈도의 상관성

음료의 기호도와 섭취빈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5), 음료의 기호도와 섭취빈도 간에는 모든 음료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커피(.679), 홍차(.589), 녹차(.560), 둥굴레차(.499), 식초음료(.476)의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Park(1999)과 Ha 등(1999)의 연구에서 기호도와 섭취빈도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기호도는 커피보다 전통음료(식혜, 미숫가루, 녹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섭취빈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전통음료보다 커피와 생수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는 <Table 6>과 같다.

(1) BMI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

저체중 그룹은 미숫가루와 생수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 그룹은 식혜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기호도가 가장 낮은 음료는 저체중과 정상 체중 그룹은 대추음료, 과체중

체형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그룹은 미숫가루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 그룹은 식혜의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기호도가 낮은 음료를 보면 전혀 만족하지 않는 그룹은 인삼차와 대추음료, 보통인 그룹은 식초음료와 대추음료, 만족하는 그룹은 식초음료, 만족하지 않는 그룹과 만족하는 그룹은 대추음료의 기호도가 가장 낮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체형만족에 따른 커피의 기호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전통음료 중 대추음료의 기호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1).

(3) 체중조절의 관심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

체중조절에 관심이 있는 그룹은 미숫가루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의 모든 그룹은 식혜의 기호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관심이 있음, 매우 관심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그룹은 대추음료의 기호도가 가장 낮았고 그 외 그룹은 식초음료의 기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의 관심에 따른 커피의 기호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체중조절에 매우 관심이 있는 그룹이 전통음료 중에서 녹차(p<0.01), 유자차(p<0.05), 둥굴레차(p<0.05)의 기호도가 다른 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홍차에서도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Table 5>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reference and frequency of intake

Beverages	Correlation
Coffee	0.679**
Green tea	0.560**
Black tea	0.589**
Sikhye	0.269**
Sujeonggwa	0.351**
Yuja tea	0.343**
Ginseng tea	0.298**
Dunggulre tea	0.499**
Yulmu tea	0.387**
Misugaru	0.234**
Vinegar drinks	0.476**
Grain drinks	0.421**
Maesil drinks	0.425**
Honey tea	0.316**
Rice drinks	0.310**
Jujube drinks	0.341**
Water	0.413**

**p<0.01

과 비만 그룹은 식초음료의 기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BMI에 따른 커피의 기호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과체중과 비만그룹이 저체중 그룹보다 전통음료 중 식혜와 수정과에 대한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매실 음료도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2) 체형만족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

(4) 음료를 마실 때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

음료를 마실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룹은 녹차, 매우 관심이 있는 그룹은 미숫가루와 생수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 그룹은 식혜의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기호도가 낮은 음료는 전혀 관심 없음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그룹은 식초음료, 그 외 나머지 그룹들은 대추음료의 기호도가 가장 낮다고 응답했다. 음료를 마실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커피(p<0.05)의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전통음료 중에서는 음료를 마실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룹이 관심이 적은 그룹보다 녹차(p<0.01), 둥굴레차(p<0.001), 식초음료(p<0.01)의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술 섭취 횟수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음, 한 달에 1-4번 마시는 그룹은 식혜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일 년에 4-11번 마시는 그룹은 미숫가루, 일주일에 2-3번, 거의 매일 마시는 그룹은 생수의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은 인삼차의 기호도가 가장 낮았고 한 달에 1-4번 마시는 그룹은 식초음료와 대추음료, 거의 매일 마시는 그룹은 식초음료, 일년에 4-11번, 일주일에 2-3번 마시는 그룹은 대추음료의 기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술의 섭취에 따른 기호도를 살펴보면 술을 많이 마시는 그룹이 다

<Table 6> Preference of beverages by health related factors

Variables	Coffee	Green tea	Black tea	Sikhye	Sujeonggwa	Yuja tea	Ginseng tea	Dunggulre tea
Obesity index								
- under weight(BMI<18.5)	3.52±0.91 ^{a1)}	3.76±0.71 ^a	2.76±0.90 ^a	3.67±0.96 ^a	2.67±0.92 ^a	3.67±0.99 ^a	2.24±1.06 ^a	3.56±0.95 ^a
- normal(BMI 18.5-22.9)	3.61±0.97 ^a	3.78±0.86 ^a	3.02±0.92 ^a	4.00±0.90 ^{ab}	3.24±1.11 ^b	3.73±0.97 ^a	2.51±1.09 ^a	3.34±0.91 ^a
- over weight(BMI 23-24.9)	3.61±0.90 ^a	3.63±0.80 ^a	2.90±0.90 ^a	4.27±0.72 ^b	3.24±1.05 ^b	3.78±1.12 ^a	2.57±1.19 ^a	3.12±0.97 ^a
- obese(BMI ≥ 25)	3.24±0.83 ^a	3.57±0.98 ^a	2.95±1.02 ^a	4.19±0.75 ^b	3.33±1.02 ^b	3.38±0.92 ^a	2.29±1.01 ^a	3.14±0.91 ^a
F-value	1.02	0.73	0.86	3.57*	2.88*	0.88	0.88	1.80
Satisfaction on body shape								
- Never satisfied	3.52±0.77 ^a	3.84±0.75 ^a	2.88±0.97 ^a	4.16±1.11 ^a	2.84±1.18 ^a	3.32±1.25 ^a	2.00±1.12 ^a	3.28±0.94 ^a
- Not satisfied	3.59±0.98 ^a	3.77±0.78 ^a	2.89±0.90 ^a	4.06±0.77 ^a	3.16±1.05 ^a	3.76±0.95 ^a	2.48±1.14 ^a	3.20±0.94 ^a
- Average	3.54±0.86 ^a	3.66±0.91 ^a	3.12±0.92 ^a	3.88±0.90 ^a	3.22±1.04 ^a	3.74±0.93 ^a	2.62±1.06 ^a	3.43±0.90 ^a
- satisfied	3.56±1.10 ^a	3.73±0.89 ^a	2.84±1.00 ^a	4.20±0.94 ^a	3.38±1.19 ^a	3.73±1.05 ^a	2.38±1.03 ^a	3.27±0.99 ^a
- much satisfied	4.00±1.23 ^a	4.00±1.00 ^a	3.00±0.00 ^a	4.00±0.71 ^a	2.80±1.10 ^a	3.40±1.52 ^a	2.60±1.14 ^a	3.80±0.84 ^a
F-value	0.33	0.45	1.15	1.32	1.18	1.17	1.71	1.11
Interest in weight control								
- Never interested	3.44±1.13 ^a	3.89±0.93 ^{ab}	2.56±0.73 ^a	4.22±0.83 ^a	3.11±1.45 ^a	3.22±1.30 ^a	2.33±1.66 ^a	3.56±1.01 ^{ab}
- Not interested	3.77±0.76 ^a	3.42±0.96 ^a	2.87±1.02 ^a	4.10±0.87 ^a	3.29±1.01 ^a	3.52±1.15 ^{ab}	2.32±1.14 ^a	3.06±0.89 ^a
- Average	3.55±0.99 ^a	3.55±0.92 ^{ab}	3.00±0.99 ^a	3.90±1.01 ^a	3.14±0.95 ^a	3.55±0.99 ^{ab}	2.38±1.04 ^a	3.14±0.93 ^{ab}
- interested	3.48±0.93 ^a	3.74±0.78 ^{ab}	2.97±0.90 ^a	4.00±0.87 ^a	3.12±1.12 ^a	3.70±0.97 ^{ab}	2.58±1.10 ^a	3.28±0.97 ^{ab}
- much interested	3.73±0.99 ^a	4.04±0.79 ^b	3.04±0.91 ^a	4.12±0.83 ^a	3.33±1.10 ^a	4.04±0.86 ^b	2.37±1.01 ^a	3.63±0.77 ^b
F-value	1.13	3.48**	0.62	0.52	0.46	2.57*	0.70	2.72*
Interest in health when drink beverages								
- Never interested	3.76±0.82 ^b	3.53±0.86 ^a	2.76±0.86 ^a	3.97±1.03 ^a	3.03±1.19 ^a	3.47±1.16 ^a	2.15±1.18 ^a	2.74±0.93 ^a
- A little interested	3.73±0.91 ^b	3.64±0.85 ^a	2.95±0.91 ^a	4.14±0.82 ^a	3.01±1.15 ^a	3.64±1.03 ^a	2.45±1.12 ^{ab}	3.28±0.87 ^{bc}
- Average	3.49±0.85 ^b	3.62±0.80 ^a	2.99±0.97 ^a	4.06±0.78 ^a	3.33±1.00 ^a	3.68±0.92 ^a	2.59±1.01 ^{ab}	3.14±0.95 ^b
- interested	3.52±0.96 ^b	4.05±0.78 ^b	3.11±0.84 ^a	3.89±0.97 ^a	3.22±1.07 ^a	3.85±0.97 ^a	2.44±1.08 ^{ab}	3.66±0.79 ^{cd}
- much interested	3.06±1.35 ^a	3.78±0.94 ^{ab}	2.72±1.18 ^a	4.06±0.94 ^a	3.28±1.02 ^a	3.94±1.00 ^a	2.78±1.22 ^b	3.83±0.92 ^d
F-value	2.48*	3.96**	1.18	0.79	1.06	1.22	1.38	8.77***
Number of drinking alcohol								
- never drink	3.39±0.98 ^a	3.89±0.76 ^a	3.00±0.84 ^a	4.00±0.84 ^{ab}	3.39±1.04 ^b	3.89±0.90 ^b	2.67±0.84 ^a	3.56±0.51 ^a
- 4-11times/year	3.43±1.01 ^a	3.69±0.96 ^a	2.66±0.87 ^a	3.86±0.97 ^{ab}	3.26±1.15 ^b	3.57±1.17 ^{ab}	2.51±0.98 ^a	3.20±1.05 ^a
- 1-4times/month	3.53±0.89 ^a	3.72±0.85 ^a	3.05±0.96 ^a	4.14±0.85 ^b	3.21±1.08 ^b	3.79±0.92 ^b	2.53±1.13 ^a	3.38±0.91 ^a
- 2-3times/week	3.80±0.94 ^a	3.72±0.80 ^a	2.91±0.88 ^a	3.89±0.85 ^{ab}	3.08±1.08 ^b	3.58±1.04 ^{ab}	2.31±1.15 ^a	3.11±0.99 ^a
- almost everyday	3.33±1.51 ^a	4.00±0.63 ^a	3.00±0.63 ^a	3.50±1.38 ^a	2.33±1.03 ^a	3.00±1.41 ^a	2.00±0.89 ^a	3.33±0.82 ^a
F-value	1.51	0.33	1.39	1.92	1.31	1.58	0.89	1.44
Exercise								
- never	3.51±1.00 ^a	3.79±0.78 ^a	2.89±0.96 ^a	3.98±0.84 ^a	3.06±1.05 ^a	3.71±0.93 ^a	2.42±1.03 ^a	3.28±0.92 ^a
- 1-2times/week	3.65±0.87 ^a	3.63±0.88 ^a	2.98±0.92 ^a	4.12±0.90 ^a	3.30±1.10 ^a	3.61±1.10 ^a	2.45±1.11 ^a	3.33±0.91 ^a
- 3-4times/week	3.67±0.78 ^a	3.76±0.94 ^a	3.21±0.78 ^a	3.85±0.97 ^a	3.21±1.19 ^a	3.97±1.08 ^a	2.73±1.28 ^a	3.42±0.97 ^a
- 5-6times/week	3.38±1.30 ^a	3.88±1.13 ^a	2.88±0.84 ^a	4.00±1.07 ^a	2.75±0.71 ^a	3.50±0.54 ^a	2.25±1.17 ^a	3.13±0.99 ^a
- everyday	3.44±1.04 ^a	3.83±0.79 ^a	3.00±0.91 ^a	4.11±0.83 ^a	3.44±1.15 ^a	3.78±0.94 ^a	2.56±1.15 ^a	3.22±1.11 ^a
F-value	0.56	0.64	0.84	0.74	1.23	0.91	0.63	0.28

¹⁾ Mean ± S.D

*p<0.05, **p<0.01, ***p<0.001

abc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른 그룹보다 식초음료(p<0.05)와 대추음료(p<0.01)의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낮았고 거의 매일 마시는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식혜, 수정과, 유자차, 곡물음료의 기호도가 낮았다. 반면, 생수의 기호도는 높았다.

(6) 운동횟수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

주 3-4회 운동을 하는 그룹은 미숫가루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 그룹은 식혜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주 3-4회 운동을 하는 그룹은 식초음료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낮았으며, 주 5-6회 운동을 하는 그룹은 식초음료와 대추음료, 그 외 그룹은 대추음료의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운동횟수에 따른 커피의 기호도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

<Table 6> Preference of beverages by health related factors (continued)

Variables	Yulmu tea	Misugaru	Vinegar drinks	Grain drinks	Maesil drinks	Honey tea	Rice drinks	Jujube drinks	Water
Obesity index									
- under weight(BMI<18.5)	3.91 ± 0.69 ^{a1)}	3.94 ± 0.88 ^a	2.44 ± 1.08 ^a	3.19 ± 1.00 ^a	2.91 ± 0.93 ^a	3.09 ± 0.89 ^a	3.09 ± 0.86 ^a	2.16 ± 1.05 ^a	3.94 ± 0.91 ^a
- normal(BMI 18.5-22.9)	3.67 ± 0.83 ^a	3.97 ± 0.90 ^a	2.47 ± 1.04 ^a	3.35 ± 0.95 ^a	3.40 ± 0.98 ^b	3.27 ± 1.00 ^{ab}	3.25 ± 1.00 ^a	2.33 ± 0.98 ^a	3.74 ± 0.96 ^a
- over weight(BMI 23-24.9)	3.63 ± 1.17 ^a	3.86 ± 0.90 ^a	2.16 ± 1.05 ^a	3.06 ± 1.09 ^a	3.43 ± 1.01 ^b	3.24 ± 1.05 ^a	3.14 ± 1.04 ^a	2.27 ± 1.00 ^a	3.88 ± 1.09 ^a
- obese(BMI ≥ 25)	3.57 ± 0.87 ^a	4.00 ± 0.84 ^a	2.05 ± 1.12 ^a	3.24 ± 1.00 ^a	3.38 ± 1.07 ^b	3.33 ± 0.73 ^b	3.67 ± 0.73 ^a	2.33 ± 0.80 ^a	3.67 ± 1.02 ^a
F-value	0.85	0.20	1.97	1.24	2.43	0.35	1.77	0.31	0.66
Satisfaction on body shape									
- Never satisfied	3.84 ± 1.03 ^a	3.96 ± 1.02 ^a	2.24 ± 1.13 ^a	3.12 ± 1.13 ^a	3.32 ± 1.07 ^a	3.04 ± 0.89 ^a	2.88 ± 1.09 ^a	2.00 ± 1.04 ^a	4.04 ± 1.10 ^a
- Not satisfied	3.60 ± 0.91 ^a	4.04 ± 0.81 ^a	2.31 ± 0.99 ^a	3.30 ± 0.93 ^a	3.26 ± 1.00 ^a	3.11 ± 1.03 ^a	3.25 ± 0.96 ^a	2.14 ± 0.84 ^a	3.63 ± 1.02 ^a
- Average	3.73 ± 0.84 ^a	3.85 ± 0.92 ^a	2.58 ± 1.10 ^a	3.34 ± 1.00 ^a	3.43 ± 1.00 ^a	3.38 ± 0.98 ^a	3.31 ± 0.97 ^a	2.58 ± 1.06 ^a	3.81 ± 0.92 ^a
- satisfied	3.67 ± 0.91 ^a	3.89 ± 0.96 ^a	2.22 ± 1.06 ^a	3.11 ± 0.98 ^a	3.38 ± 0.98 ^a	3.40 ± 0.92 ^a	3.27 ± 1.03 ^a	2.29 ± 0.97 ^a	3.93 ± 0.94 ^a
- much satisfied	4.00 ± 0.71 ^a	4.20 ± 0.84 ^a	2.20 ± 0.84 ^a	3.40 ± 1.14 ^a	3.60 ± 0.55 ^a	3.40 ± 0.55 ^a	3.20 ± 0.45 ^a	2.00 ± 0.71 ^a	3.80 ± 0.84 ^a
F-value	0.64	0.69	1.43	0.61	0.46	1.53	0.99	3.60**	1.38
Interest in weight control									
- Never interested	3.56 ± 1.33 ^a	3.89 ± 1.17 ^a	1.67 ± 0.71 ^a	3.33 ± 1.23 ^a	3.22 ± 1.39 ^a	3.44 ± 1.13 ^a	3.11 ± 0.93 ^a	2.22 ± 1.39 ^a	4.11 ± 0.78 ^a
- Not interested	3.42 ± 0.72 ^a	3.71 ± 1.04 ^a	2.13 ± 0.89 ^{ab}	3.16 ± 0.82 ^a	3.58 ± 0.92 ^a	3.45 ± 0.89 ^a	3.52 ± 0.72 ^a	2.23 ± 0.92 ^a	3.77 ± 0.92 ^a
- Average	3.60 ± 0.83 ^a	3.69 ± 0.98 ^a	2.29 ± 0.97 ^b	3.10 ± 1.08 ^a	3.21 ± 1.00 ^a	3.26 ± 0.94 ^a	3.10 ± 0.96 ^a	2.33 ± 1.10 ^a	3.64 ± 1.08 ^a
- interested	3.74 ± 0.91 ^a	4.03 ± 0.82 ^a	2.41 ± 1.05 ^b	3.33 ± 0.97 ^a	3.32 ± 1.01 ^a	3.24 ± 1.02 ^a	3.25 ± 1.06 ^a	2.34 ± 0.97 ^a	3.71 ± 0.99 ^a
- much interested	3.79 ± 0.89 ^a	4.08 ± 0.84 ^a	2.63 ± 1.22 ^b	3.29 ± 1.00 ^a	3.40 ± 0.93 ^a	3.10 ± 0.93 ^a	3.19 ± 0.91 ^a	2.23 ± 0.88 ^a	4.04 ± 0.93 ^a
F-value	1.15	2.04	2.39	0.58	0.71	0.74	0.92	0.19	1.56
Interest in health when drink beverages									
- Never interested	3.56 ± 1.08 ^a	3.91 ± 0.97 ^a	1.82 ± 0.87 ^a	3.29 ± 1.00 ^a	3.35 ± 1.13 ^a	3.24 ± 0.99 ^a	3.09 ± 1.06 ^a	2.00 ± 0.99 ^a	3.53 ± 1.19 ^a
- A little interested	3.86 ± 0.75 ^a	3.97 ± 0.79 ^a	2.43 ± 1.05 ^b	3.24 ± 0.95 ^a	3.39 ± 0.96 ^a	3.27 ± 1.04 ^a	3.30 ± 1.00 ^a	2.35 ± 0.94 ^a	3.70 ± 0.96 ^a
- Average	3.51 ± 0.90 ^a	3.83 ± 0.94 ^a	2.26 ± 0.94 ^{ab}	3.15 ± 0.94 ^a	3.28 ± 0.97 ^a	3.31 ± 0.92 ^a	3.34 ± 0.91 ^a	2.33 ± 0.93 ^a	3.71 ± 0.98 ^a
- interested	3.71 ± 0.89 ^a	4.00 ± 0.93 ^a	2.67 ± 1.14 ^b	3.36 ± 0.95 ^a	3.45 ± 0.91 ^a	3.14 ± 0.93 ^a	3.16 ± 0.94 ^a	2.36 ± 1.02 ^a	3.71 ± 0.98 ^a
- much interested	3.83 ± 0.92 ^a	4.22 ± 0.73 ^a	2.56 ± 1.15 ^b	3.50 ± 1.38 ^a	3.06 ± 1.31 ^a	3.33 ± 1.19 ^a	3.17 ± 1.20 ^a	2.33 ± 1.14 ^a	4.22 ± 1.00 ^b
F-value	1.84	0.90	4.37**	0.70	0.73	0.36	0.60	0.93	2.23
Number of drinking alcohol									
- never drink	3.67 ± 0.91 ^a	3.94 ± 1.00 ^a	2.72 ± 0.75 ^b	3.39 ± 0.70 ^b	3.28 ± 0.58 ^a	3.33 ± 0.77 ^a	3.44 ± 0.78 ^a	2.94 ± 0.87 ^c	3.89 ± 0.96 ^{ab}
- 4-11times/year	3.91 ± 0.82 ^a	4.11 ± 0.87 ^a	2.57 ± 1.09 ^b	3.09 ± 0.95 ^{ab}	3.11 ± 0.96 ^a	3.20 ± 0.99 ^a	3.06 ± 0.84 ^a	2.26 ± 1.04 ^b	3.43 ± 0.92 ^a
- 1-4times/month	3.72 ± 0.84 ^a	3.97 ± 0.85 ^a	2.35 ± 1.08 ^b	3.28 ± 0.97 ^{ab}	3.36 ± 1.04 ^a	3.28 ± 0.97 ^a	3.35 ± 0.98 ^a	2.35 ± 0.97 ^{bc}	3.76 ± 0.97 ^a
- 2-3times/week	3.50 ± 1.02 ^a	3.83 ± 0.94 ^a	2.36 ± 1.01 ^b	3.38 ± 1.00 ^b	3.42 ± 0.99 ^a	3.16 ± 1.01 ^a	3.06 ± 1.02 ^a	2.11 ± 0.91 ^b	3.92 ± 1.01 ^{ab}
- almost everyday	3.33 ± 0.82 ^a	3.67 ± 1.21 ^a	1.17 ± 0.41 ^a	2.67 ± 1.86 ^a	3.83 ± 0.98 ^a	3.50 ± 1.38 ^a	2.83 ± 1.60 ^a	1.33 ± 0.52 ^a	4.50 ± 0.84 ^b
F-value	1.60	0.76	2.85*	1.12	0.95	0.32	1.76	4.38**	2.38
Exercise									
- never	3.70 ± 0.87 ^a	3.89 ± 0.95 ^{ab}	2.26 ± 0.95 ^a	3.25 ± 0.98 ^{ab}	3.18 ± 1.04 ^{ab}	3.10 ± 1.05 ^a	3.11 ± 0.99 ^{ab}	2.23 ± 0.98 ^{ab}	3.73 ± 0.91 ^a
- 1-2times/week	3.59 ± 0.90 ^a	3.99 ± 0.78 ^b	2.52 ± 1.10 ^a	3.25 ± 1.01 ^{ab}	3.49 ± 0.94 ^b	3.39 ± 0.93 ^a	3.47 ± 0.89 ^b	2.35 ± 0.97 ^{ab}	3.85 ± 0.98 ^a
- 3-4times/week	3.76 ± 0.97 ^a	4.15 ± 0.87 ^b	2.67 ± 1.22 ^a	3.58 ± 0.83 ^b	3.64 ± 0.86 ^b	3.33 ± 0.85 ^a	3.42 ± 0.97 ^b	2.70 ± 0.95 ^b	3.76 ± 1.09 ^a
- 5-6times/week	3.63 ± 1.06 ^a	3.38 ± 1.06 ^b	2.00 ± 0.76 ^a	2.63 ± 1.06 ^a	2.75 ± 0.89 ^a	3.13 ± 0.64 ^a	2.75 ± 0.89 ^a	2.00 ± 0.76 ^a	3.38 ± 1.19 ^a
- everyday	3.94 ± 0.73 ^a	4.00 ± 0.97 ^a	2.11 ± 1.18 ^a	3.22 ± 1.06 ^{ab}	3.50 ± 1.04 ^b	3.44 ± 0.98 ^a	2.78 ± 1.11 ^a	1.89 ± 0.90 ^a	3.94 ± 1.16 ^a
F-value	0.71	1.48	2.03	1.71	3.00*	1.50	3.77**	2.63*	0.67

¹⁾ Mean ± S.D

*p<0.05, **p<0.01

abc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타나지 않았으나 전통음료 중 매실음료(p<0.05), 쌀음료(p<0.01), 대추음료(p<0.05)의 기호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주 5-6회 이상 운동을 하는 그룹이 쌀음료와 대추음료의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7) 체중조절의 시도 경험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

호도

체중조절의 시도 경험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는(Table 7), 두 그룹 모두 식혜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가장 기호도가 낮은 음료는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그룹은 대추음료, 경험이 없는 그룹은 식초음료의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체중조절의 시도 경험에 따른 커피의 기호도는 유

<Table 7> Preference of beverages by experience in weight control

Variables	experienced	not experienced	t-value
Coffee	3.53±0.92 ¹⁾	3.65±0.98	-1.02
Green tea	3.81±0.81	3.57±0.90	2.22*
Black tea	3.01±0.92	2.87±0.93	1.23
Sikhye	4.04±0.83	3.99±0.99	0.47
Sujeonggwa	3.24±1.10	3.06±1.06	1.29
Yuja tea	3.80±0.96	3.49±1.05	2.41*
Ginseng tea	2.51±1.05	2.39±1.19	0.81
Dunggulre tea	3.35±0.91	3.22±0.99	1.12
Yulmu tea	3.79±0.87	3.47±0.91	2.82**
Misugaru	4.01±0.84	3.82±0.99	1.54
Vinegar drinks	2.50±1.10	2.13±0.92	2.95**
Grain drinks	3.35±0.97	3.09±1.00	2.06*
Maesil drinks	3.36±0.97	3.33±1.05	0.21
Honey tea	3.23±0.98	3.28±0.97	-0.43
Rice drinks	3.27±0.99	3.18±0.97	0.67
Jujube drinks	2.35±0.91	2.19±1.11	1.26
Water	3.83±0.97	3.68±1.00	1.15

¹⁾ Mean ± S.D

*p<0.05, **p<0.01

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조절의 시도 경험이 있는 그룹이 커피의 기호도는 더 낮게 나타났으며, 전통음료 중에서는 녹차(p<0.05), 유자차(p<0.05), 울무차(p<0.01), 식초음료(p<0.01), 곡물음료(p<0.05)의 기호도는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8) 담배의 섭취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

담배의 섭취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는 <Table 8>과 같다. 두 그룹 모두 가장 기호도가 높은 음료는 식혜로 응답하였으며, 기호도가 가장 낮은 음료는 흡연 그룹에서는 식초음료, 비흡연 그룹에서는 대추음료의 기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에 따른 기호도를 살펴보면 흡연 그룹이 커피(p<0.01)와 수정과(p<0.01)의 기호도는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둥굴레차(p<0.05)의 기호도는 유의적으로 낮았다.

3)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는 <Table 9>과 같다.

(1) BMI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

저체중과 비만 그룹은 커피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고 정상과 과체중 그룹은 생수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다. 정상 그룹은 인삼차와 대추음료의 섭취빈도가 가장 낮았고 그 외 모든 그룹은 인삼차의 섭취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BMI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는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전통음료 중에서 울무차, 미숫가루, 매실음료는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비만일수록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커피, 식혜, 꿀차, 쌀음료는

<Table 8> Preference of beverages by smoking

Variables	Smoker	Nonsmoker	t-value
Coffee	3.95±0.75 ¹⁾	3.50±0.96	3.34**
Green tea	3.80±0.65	3.73±0.87	0.64
Black tea	2.98±0.97	2.96±0.92	0.08
Sikhye	4.25±0.78	3.99±0.89	1.75
Sujeonggwa	3.63±1.03	3.10±1.08	2.84**
Yuja tea	3.70±1.14	3.70±0.98	-0.02
Ginseng tea	2.53±1.30	2.46±1.06	0.29
Dunggulre tea	3.03±0.99	3.35±0.92	-2.05*
Yulmu tea	3.49±0.89	3.72±0.89	-1.50
Misugaru	3.87±0.83	3.96±0.90	-0.56
Vinegar drinks	2.08±0.98	2.43±1.06	-1.94
Grain drinks	3.10±0.97	3.30±0.99	-1.14
Maesil drinks	3.54±0.88	3.32±1.01	1.29
Honey tea	3.49±0.97	3.21±0.98	1.66
Rice drinks	3.41±0.97	3.21±0.98	1.17
Jujube drinks	2.54±1.07	2.26±0.96	1.64
Water	3.79±1.08	3.78±0.97	0.09

¹⁾ Mean ± S.D

*p<0.05, **p<0.01

과체중과 비만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섭취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Lee(1998)의 연구에서도 커피 마시는 양의 증가에 따라 BMI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체형만족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

보통, 매우 만족하는 그룹이 커피의 섭취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 모든 그룹은 생수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섭취빈도가 가장 낮은 음료를 보면 체형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그룹은 수정과와 인삼차라고 응답했고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그룹은 대추음료, 보통, 만족함이라고 응답한 그룹은 인삼차의 섭취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체형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그룹이 녹차의 섭취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3) 체중조절의 관심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

관심이 없음, 보통이라고 응답한 그룹은 커피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 그룹들은 생수의 섭취가 가장 높았다. 가장 섭취빈도가 낮은 음료는 모든 그룹에서 생강차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체중조절의 관심에 따른 커피의 섭취는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룹이 관심이 적은 그룹보다 녹차(p<0.01)의 섭취는 유의적으로 높았다.

<Table 9> Frequency of intake on beverages by health related factors

Variables	Coffee	Green tea	Black tea	Sikhye	Sujeonggwa	Yuja tea	Ginseng tea	Dunggulre tea
Obesity index								
- under weight(BMI<18.5)	3.45 ± 1.77 ^{a1)}	3.21 ± 1.56 ^a	1.45 ± 1.03 ^a	1.64 ± 0.82 ^a	1.12 ± 0.42 ^a	1.55 ± 0.79 ^a	1.06 ± 0.24 ^a	2.58 ± 2.00 ^a
- normal(BMI 18.5-22.9)	3.80 ± 1.63 ^a	3.56 ± 1.45 ^a	1.77 ± 1.18 ^a	1.78 ± 0.97 ^a	1.41 ± 0.80 ^a	1.74 ± 0.97 ^a	1.21 ± 0.68 ^a	1.94 ± 1.41 ^a
- over weight(BMI 23-24.9)	4.16 ± 1.78 ^a	3.43 ± 1.45 ^a	1.63 ± 0.98 ^a	1.88 ± 0.97 ^a	1.33 ± 0.62 ^a	1.65 ± 0.84 ^a	1.06 ± 0.24 ^a	1.94 ± 1.41 ^a
- obese(BMI ≥ 25)	3.90 ± 1.64 ^a	3.19 ± 1.47 ^a	1.76 ± 1.26 ^a	1.86 ± 0.85 ^a	1.43 ± 0.51 ^a	1.48 ± 0.81 ^a	1.14 ± 0.36 ^a	2.10 ± 1.41 ^a
F-value	1.23	0.83	0.80	0.49	1.56	0.88	1.37	1.76
Satisfaction on body shape								
- Never satisfied	3.32 ± 1.55 ^a	3.60 ± 1.32 ^b	1.56 ± 0.65 ^a	1.72 ± 1.02 ^a	1.16 ± 0.37 ^a	1.56 ± 0.77 ^a	1.04 ± 0.20 ^a	1.96 ± 1.54 ^a
- Not satisfied	3.84 ± 1.66 ^a	3.52 ± 1.42 ^b	1.60 ± 1.10 ^a	1.75 ± 0.93 ^a	1.35 ± 0.69 ^a	1.68 ± 0.95 ^a	1.14 ± 0.54 ^a	1.84 ± 1.45 ^a
- Average	3.91 ± 1.62 ^a	3.33 ± 1.41 ^{ab}	1.92 ± 1.32 ^a	1.84 ± 0.94 ^a	1.41 ± 0.79 ^a	1.74 ± 0.88 ^a	1.24 ± 0.72 ^a	2.25 ± 1.59 ^a
- satisfied	3.98 ± 1.88 ^a	3.69 ± 1.70 ^b	1.62 ± 0.98 ^a	1.84 ± 1.00 ^a	1.42 ± 0.78 ^a	1.62 ± 0.91 ^a	1.13 ± 0.41 ^a	1.98 ± 1.31 ^a
- much satisfied	3.40 ± 2.07 ^a	2.40 ± 1.52 ^a	1.20 ± 0.45 ^a	1.60 ± 0.55 ^a	1.00 ± 0.00 ^a	1.80 ± 1.79 ^a	1.00 ± 0.00 ^a	2.60 ± 1.82 ^a
F-value	0.80	1.23	1.50	0.22	1.03	0.28	0.89	1.15
Interest in weight control								
- Never interested	3.44 ± 1.67 ^a	3.22 ± 1.64 ^{ab}	1.33 ± 0.50 ^a	2.00 ± 0.87 ^a	1.11 ± 0.33 ^a	1.33 ± 0.50 ^a	1.00 ± 0.00 ^a	2.56 ± 1.67 ^b
- Not interested	4.39 ± 1.54 ^a	2.94 ± 1.39 ^a	1.58 ± 0.89 ^a	1.65 ± 0.80 ^a	1.32 ± 0.54 ^{ab}	1.68 ± 0.91 ^a	1.13 ± 0.43 ^a	1.52 ± 0.85 ^a
- Average	4.02 ± 1.54 ^a	3.02 ± 1.35 ^a	1.88 ± 1.25 ^a	1.86 ± 1.07 ^a	1.57 ± 0.99 ^b	1.83 ± 1.08 ^a	1.33 ± 0.85 ^a	1.93 ± 1.33 ^{ab}
- interested	3.67 ± 1.77 ^a	3.54 ± 1.44 ^{ab}	1.69 ± 1.15 ^a	1.79 ± 0.94 ^a	1.36 ± 0.73 ^{ab}	1.66 ± 0.92 ^a	1.14 ± 0.55 ^a	2.06 ± 1.63 ^{ab}
- much interested	3.87 ± 1.57 ^a	3.98 ± 1.45 ^b	1.73 ± 1.19 ^a	1.77 ± 0.96 ^a	1.25 ± 0.48 ^{ab}	1.69 ± 0.83 ^a	1.12 ± 0.43 ^a	2.23 ± 1.45 ^{ab}
F-value	1.46	3.91 ^{**}	0.60	0.35	1.53	0.64	1.30	1.51
Interest in health when drink beverages								
- Never interested	4.03 ± 1.75 ^b	2.94 ± 1.39 ^a	1.47 ± 0.86 ^a	1.85 ± 1.11 ^a	1.24 ± 0.61 ^a	1.50 ± 0.86 ^a	1.06 ± 0.24 ^a	1.35 ± 0.81 ^a
- A little interested	4.07 ± 1.58 ^b	3.26 ± 1.30 ^a	1.41 ± 0.78 ^a	1.65 ± 0.80 ^a	1.27 ± 0.63 ^a	1.51 ± 0.65 ^a	1.08 ± 0.28 ^a	1.92 ± 1.39 ^{ab}
- Average	3.96 ± 1.79 ^b	3.42 ± 1.56 ^{ab}	1.85 ± 1.32 ^a	1.91 ± 1.02 ^a	1.44 ± 0.79 ^a	1.75 ± 1.06 ^a	1.20 ± 0.70 ^a	1.93 ± 1.47 ^{ab}
- interested	3.67 ± 1.50 ^b	4.03 ± 1.36 ^b	1.95 ± 1.22 ^a	1.81 ± 0.94 ^a	1.45 ± 0.78 ^a	1.90 ± 1.00 ^a	1.25 ± 0.72 ^a	2.49 ± 1.65 ^b
- much interested	2.56 ± 1.65 ^a	3.28 ± 1.60 ^a	1.72 ± 1.27 ^a	1.61 ± 0.85 ^a	1.22 ± 0.55 ^a	1.50 ± 0.79 ^a	1.17 ± 0.51 ^a	2.33 ± 1.78 ^b
F-value	3.50 ^{**}	4.48 ^{**}	2.89 [*]	0.97	1.31	2.37	1.15	4.06 ^{***}
Number of drinking alcohol								
- never drink	3.83 ± 1.79 ^a	4.00 ± 1.53 ^a	2.11 ± 1.32 ^a	1.83 ± 1.10 ^a	1.44 ± 1.04 ^a	1.94 ± 1.06 ^a	1.06 ± 0.24 ^a	2.11 ± 1.13 ^a
- 4-11times/year	3.46 ± 1.87 ^a	3.66 ± 1.77 ^a	1.40 ± 0.78 ^a	1.60 ± 0.74 ^a	1.29 ± 0.52 ^a	1.71 ± 0.93 ^a	1.11 ± 0.32 ^a	1.89 ± 1.53 ^a
- 1-4times/month	3.81 ± 1.65 ^a	3.40 ± 1.41 ^a	1.72 ± 1.18 ^a	1.78 ± 0.93 ^a	1.31 ± 0.62 ^a	1.68 ± 0.92 ^a	1.14 ± 0.55 ^a	2.10 ± 1.54 ^a
- 2-3times/week	4.11 ± 1.55 ^a	3.32 ± 1.39 ^a	1.68 ± 1.11 ^a	1.92 ± 1.07 ^a	1.51 ± 0.90 ^a	1.63 ± 0.91 ^a	1.25 ± 0.75 ^a	1.85 ± 1.37 ^a
- almost everyday	3.50 ± 2.17 ^a	4.17 ± 1.17 ^a	2.00 ± 1.27 ^a	1.50 ± 0.55 ^a	1.17 ± 0.41 ^a	1.33 ± 0.52 ^a	1.33 ± 0.52 ^a	2.83 ± 2.32 ^a
F-value	0.94	1.34	1.34	0.83	1.12	0.64	0.77	0.85
Exercise								
- never	3.62 ± 1.76 ^b	3.32 ± 1.42 ^a	1.55 ± 1.04 ^a	1.65 ± 0.78 ^{ab}	1.26 ± 0.52 ^a	1.57 ± 0.80 ^a	1.06 ± 0.28 ^a	2.08 ± 1.56 ^{ab}
- 1-2times/week	4.29 ± 1.46 ^b	3.59 ± 1.48 ^{ab}	1.89 ± 1.28 ^a	2.02 ± 1.06 ^{ab}	1.52 ± 0.90 ^a	1.89 ± 1.10 ^a	1.22 ± 0.63 ^a	1.95 ± 1.32 ^{ab}
- 3-4times/week	3.70 ± 1.57 ^b	3.27 ± 1.33 ^a	1.70 ± 1.08 ^a	1.48 ± 0.76 ^a	1.27 ± 0.76 ^a	1.55 ± 0.79 ^a	1.30 ± 1.02 ^a	2.12 ± 1.65 ^{ab}
- 5-6times/week	2.50 ± 1.85 ^a	4.38 ± 2.13 ^b	1.38 ± 0.74 ^a	1.63 ± 1.19 ^{ab}	1.13 ± 0.35 ^a	1.38 ± 0.74 ^a	1.13 ± 0.35 ^a	1.25 ± 0.46 ^a
- everyday	3.67 ± 1.85 ^b	3.78 ± 1.40 ^{ab}	1.94 ± 1.06 ^a	2.17 ± 1.20 ^b	1.50 ± 0.62 ^a	1.72 ± 0.75 ^a	1.28 ± 0.58 ^a	2.28 ± 1.87 ^b
F-value	3.79 ^{**}	1.60	1.60	3.98 ^{**}	2.33	2.10	1.87	0.81

¹⁾ Mean ± S.D

*p<0.05, **p<0.01, ***p<0.001

ab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음료를 마실 때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
관심이 있음, 매우 관심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그룹은 생수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그룹은 커피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다.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은 대추음료를 가장 적게 섭취하고 그 외 모든 그룹은 인삼차의 섭취를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 마실 때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른 섭취빈도를 보면 관심이 매우 많은 그

<Table 9> Frequency of intake on beverages by health related factors (continued)

Variables	Yulmu tea	Misugaru	Vinegar drinks	Grain drinks	Maesil drinks	Honey tea	Rice drinks	Jujube drinks	Water
Obesity index									
- under weight(BMI<18.5)	2.09 ± 1.07 ^{a1)}	1.67 ± 1.08 ^a	1.21 ± 0.55 ^a	1.82 ± 1.33 ^a	1.55 ± 0.75 ^a	1.42 ± 0.71 ^a	1.36 ± 0.55 ^a	1.15 ± 0.36 ^a	3.42 ± 2.44 ^a
- normal(BMI 18.5-22.9)	2.21 ± 1.21 ^a	1.75 ± 0.97 ^a	1.39 ± 0.79 ^a	1.91 ± 1.19 ^a	1.66 ± 0.89 ^{ab}	1.47 ± 0.77 ^a	1.54 ± 0.84 ^a	1.21 ± 0.66 ^a	3.98 ± 2.20 ^a
- over weight(BMI 23-24.9)	2.25 ± 1.31 ^a	1.90 ± 1.15 ^a	1.25 ± 0.66 ^a	1.69 ± 1.19 ^a	1.86 ± 1.10 ^{ab}	1.67 ± 1.07 ^a	1.73 ± 1.08 ^a	1.24 ± 0.59 ^a	4.22 ± 2.27 ^a
- obese(BMI ≥ 25)	2.67 ± 1.65 ^a	2.00 ± 1.23 ^a	1.24 ± 0.70 ^a	1.95 ± 1.24 ^a	2.10 ± 1.55 ^b	1.62 ± 0.97 ^a	1.67 ± 1.02 ^a	1.19 ± 0.60 ^a	3.76 ± 2.30 ^a
F-value	1.01	0.71	0.94	0.50	1.99	0.92	1.30	0.13	0.90
Satisfaction on body shape									
- Never satisfied	2.16 ± 1.03 ^a	1.92 ± 1.19 ^a	1.32 ± 0.75 ^a	1.88 ± 1.51 ^a	1.56 ± 1.16 ^a	1.44 ± 0.77 ^a	1.36 ± 0.70 ^a	1.00 ± 0.00 ^a	4.00 ± 2.22 ^a
- Not satisfied	2.16 ± 1.35 ^a	1.68 ± 0.92 ^a	1.30 ± 0.74 ^a	1.83 ± 1.26 ^a	1.69 ± 0.98 ^a	1.44 ± 0.77 ^a	1.56 ± 0.87 ^a	1.13 ± 0.48 ^a	3.86 ± 2.22 ^a
- Average	2.34 ± 1.22 ^a	1.80 ± 1.02 ^a	1.33 ± 0.67 ^a	1.92 ± 1.15 ^a	1.75 ± 0.94 ^a	1.60 ± 0.89 ^a	1.53 ± 0.87 ^a	1.27 ± 0.64 ^a	3.88 ± 2.28 ^a
- satisfied	2.22 ± 1.19 ^a	1.93 ± 1.18 ^a	1.40 ± 0.84 ^a	1.80 ± 1.10 ^a	1.82 ± 1.03 ^a	1.60 ± 0.99 ^a	1.78 ± 1.02 ^a	1.36 ± 0.88 ^a	4.38 ± 2.35 ^a
- much satisfied	2.40 ± 1.67 ^a	2.00 ± 1.73 ^a	1.60 ± 0.89 ^a	1.80 ± 0.84 ^a	1.40 ± 0.55 ^a	1.20 ± 0.45 ^a	1.40 ± 0.55 ^a	1.40 ± 0.89 ^a	2.80 ± 1.30 ^a
F-value	0.32	0.70	0.33	0.10	0.48	0.81	1.10	2.22	0.80
Interest in weight control									
- Never interested	2.11 ± 1.27 ^a	1.67 ± 1.32 ^a	1.44 ± 0.73 ^a	2.22 ± 1.56 ^a	1.33 ± 0.50 ^a	1.44 ± 0.53 ^a	1.33 ± 0.50 ^a	1.22 ± 0.67 ^a	4.44 ± 1.74 ^a
- Not interested	2.16 ± 1.00 ^a	1.87 ± 0.99 ^a	1.13 ± 0.56 ^a	1.65 ± 1.05 ^a	1.87 ± 0.96 ^a	1.74 ± 0.89 ^{ab}	1.65 ± 0.95 ^a	1.19 ± 0.60 ^a	3.94 ± 2.25 ^a
- Average	2.24 ± 1.21 ^a	1.98 ± 1.24 ^a	1.48 ± 0.92 ^a	2.02 ± 1.48 ^a	1.95 ± 1.17 ^a	1.64 ± 0.82 ^b	1.69 ± 0.98 ^a	1.40 ± 0.86 ^a	3.21 ± 2.11 ^a
- interested	2.21 ± 1.31 ^a	1.64 ± 0.85 ^a	1.26 ± 0.59 ^a	1.79 ± 1.07 ^a	1.63 ± 0.86 ^a	1.46 ± 0.86 ^{ab}	1.55 ± 1.89 ^a	1.17 ± 0.56 ^a	3.97 ± 2.25 ^a
- much interested	2.38 ± 1.30 ^a	2.04 ± 1.24 ^a	1.52 ± 0.96 ^a	2.00 ± 1.37 ^a	1.73 ± 1.19 ^a	1.44 ± 0.80 ^{ab}	1.48 ± 0.78 ^a	1.15 ± 0.50 ^a	4.38 ± 2.36 ^a
F-value	0.25	2.00	2.29	0.94	1.43	1.08	0.56	1.34	1.74
Interest in health when drink beverages									
- Never interested	2.12 ± 1.43 ^a	1.65 ± 0.95 ^a	1.09 ± 0.29 ^a	1.88 ± 1.53 ^a	1.71 ± 1.03 ^a	1.50 ± 0.79 ^a	1.50 ± 0.79 ^{ab}	1.09 ± 0.38 ^a	3.56 ± 2.19 ^a
- A little interested	2.31 ± 1.18 ^a	1.68 ± 0.89 ^a	1.27 ± 0.67 ^{ab}	1.62 ± 0.86 ^a	1.55 ± 0.67 ^a	1.30 ± 0.52 ^a	1.32 ± 0.58 ^a	1.11 ± 0.39 ^a	3.68 ± 2.40 ^a
- Average	2.10 ± 1.15 ^a	1.85 ± 1.12 ^a	1.30 ± 0.70 ^{ab}	1.75 ± 1.16 ^a	1.65 ± 1.01 ^a	1.59 ± 0.96 ^a	1.81 ± 1.12 ^b	1.28 ± 0.78 ^a	3.91 ± 2.33 ^a
- interested	2.32 ± 1.25 ^a	1.92 ± 1.14 ^a	1.53 ± 0.91 ^b	2.21 ± 1.34 ^a	1.99 ± 0.98 ^a	1.70 ± 1.00 ^a	1.58 ± 0.88 ^{ab}	1.32 ± 0.71 ^a	4.34 ± 2.09 ^a
- much interested	2.44 ± 1.69 ^a	1.72 ± 0.90 ^a	1.39 ± 0.78 ^{ab}	1.88 ± 1.22 ^a	1.56 ± 0.98 ^a	1.33 ± 0.59 ^a	1.44 ± 0.51 ^{ab}	1.06 ± 0.24 ^a	4.28 ± 1.87 ^a
F-value	0.58	0.76	2.59*	2.43*	2.12	2.54*	3.27*	2.01	1.19
Number of drinking alcohol									
- never drink	2.11 ± 1.02 ^a	1.56 ± 0.62 ^a	1.44 ± 0.92 ^{ab}	1.61 ± 0.92 ^a	1.39 ± 0.70 ^a	1.39 ± 0.85 ^a	1.44 ± 0.62 ^a	1.28 ± 0.75 ^a	4.00 ± 2.33 ^a
- 4-11times/year	2.34 ± 1.35 ^a	1.89 ± 1.23 ^a	1.54 ± 0.92 ^b	1.69 ± 1.02 ^a	1.71 ± 1.13 ^{ab}	1.54 ± 0.89 ^a	1.60 ± 1.04 ^{ab}	1.31 ± 0.76 ^a	3.60 ± 2.25 ^a
- 1-4times/month	2.35 ± 1.36 ^a	1.74 ± 0.96 ^a	1.31 ± 0.70 ^{ab}	1.86 ± 1.13 ^a	1.71 ± 0.98 ^{ab}	1.49 ± 0.77 ^a	1.52 ± 0.77 ^a	1.20 ± 0.60 ^a	3.81 ± 2.23 ^a
- 2-3times/week	1.95 ± 0.98 ^a	1.95 ± 1.19 ^a	1.28 ± 0.67 ^{ab}	2.00 ± 1.40 ^a	1.78 ± 0.98 ^{ab}	1.49 ± 0.79 ^a	1.62 ± 0.93 ^{ab}	1.17 ± 0.55 ^a	4.46 ± 2.23 ^a
- almost everyday	2.17 ± 1.17 ^a	1.50 ± 0.84 ^a	1.00 ± 0.00 ^a	2.17 ± 2.40 ^a	2.17 ± 0.98 ^b	2.67 ± 1.86 ^b	2.17 ± 2.04 ^b	1.00 ± 0.00 ^a	3.50 ± 2.51 ^a
F-value	1.24	0.93	1.28	0.69	0.90	3.06*	0.96	0.57	1.26
Exercise									
- never	2.31 ± 1.37 ^b	1.67 ± 0.99 ^a	1.23 ± 0.61 ^{ab}	1.83 ± 1.29 ^{ab}	1.61 ± 0.93 ^a	1.47 ± 0.82 ^{ab}	1.46 ± 0.83 ^a	1.15 ± 0.50 ^a	3.68 ± 2.26 ^a
- 1-2times/week	2.31 ± 1.19 ^b	1.96 ± 1.08 ^a	1.41 ± 0.79 ^{ab}	1.96 ± 1.20 ^{ab}	1.86 ± 1.04 ^a	1.61 ± 0.94 ^{ab}	1.74 ± 1.03 ^a	1.29 ± 0.78 ^a	4.37 ± 2.24 ^a
- 3-4times/week	1.85 ± 0.94 ^b	1.58 ± 0.75 ^a	1.42 ± 0.83 ^{ab}	1.67 ± 0.85 ^{ab}	1.73 ± 1.07 ^a	1.30 ± 0.68 ^{ab}	1.52 ± 0.62 ^a	1.15 ± 0.51 ^a	3.79 ± 2.13 ^a
- 5-6times/week	1.38 ± 0.52 ^a	1.63 ± 1.06 ^a	1.00 ± 0.00 ^a	1.25 ± 0.46 ^a	1.25 ± 0.46 ^a	1.25 ± 0.46 ^a	1.50 ± 0.76 ^a	1.38 ± 0.74 ^a	3.25 ± 2.19 ^a
- everyday	2.44 ± 1.29 ^b	2.17 ± 1.38 ^a	1.61 ± 1.04 ^b	2.17 ± 1.38 ^b	1.83 ± 0.99 ^a	1.83 ± 0.71 ^b	1.39 ± 0.61 ^a	1.17 ± 0.38 ^a	4.06 ± 2.34 ^a
F-value	2.07	2.10	2.17	1.19	1.35	1.78	1.67	0.91	1.56

¹⁾ Mean ± S.D

*p<0.05

ab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커피(p<0.01)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녹차(p<0.01)와 둥굴레차(p<0.001)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홍차(p<0.05), 식초음료(p<0.05), 곡물음료(p<0.05), 꿀차(p<0.05), 쌀음료

(p<0.05)에서도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5) 술 섭취 횟수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은 녹차와 생수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년에 4-11번, 거의 매일 마시는 그룹은 녹차의 섭취가 가장 높았고 한 달에 1-4번 마시는 그룹

은 커피와 생수, 일주일에 2-3번 마시는 그룹은 생수의 섭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의 매일 마시는 그룹은 대추음료와 식초음료의 섭취빈도가 가장 적었고 일주일에 2-3번 마시는 그룹은 대추음료의 섭취빈도가 가장 낮다고 응답했다. 그 외 모든 그룹은 인삼차의 섭취빈도가 가장 낮았다. 술에 따른 섭취빈도를 보면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그룹이 꿀차(p<0.05)의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매실음료와 쌀음료의 섭취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6) 운동횟수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

운동을 주 5-6회 하는 그룹이 가장 섭취빈도가 높은 음료는 녹차이고 그 외 모든 그룹은 생수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섭취빈도가 낮은 음료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 주 1-2회 운동을 하는 그룹은 인삼차의 섭취빈도가 가장 낮고 주 3-4회, 매일 운동을 하는 그룹은 대추음료, 주 5-6회 운동을 하는 그룹은 식초음료를 가장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횟수에 따른 섭취빈도를 보면 주 5-6회 운동을 하는 그룹은 운동을 적게 하는 그룹보다 커피(p<0.01)를 유의적으로 적게 섭취하고 운동을 매일 하는 그룹은 다른 그룹 보다 홍차, 식혜(p<0.01), 둥굴레차, 울무차, 미숫가루, 식초음료, 곡물음료, 꿀차의 섭취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7) 체중조절의 시도 경험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

체중조절의 시도 경험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는 <Table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장 섭취빈도가 높

<Table 10> Frequency of intake on beverages by experience in weight control

Variables	experienced	not experienced	t-value
Coffee	3.71 ± 1.64 ¹⁾	4.10 ± 1.73	-1.84
Green tea	3.62 ± 1.45	3.15 ± 1.44	2.54*
Black tea	1.72 ± 1.14	1.67 ± 1.14	0.30
Sikhye	1.81 ± 0.96	1.74 ± 0.91	0.58
Sujeonggwa	1.36 ± 0.73	1.36 ± 0.70	0.02
Yuja tea	1.71 ± 0.92	1.62 ± 0.92	0.80
Ginseng tea	1.13 ± 0.47	1.22 ± 0.74	-1.11
Dunggulre tea	2.07 ± 1.55	1.94 ± 1.36	0.65
Yulmu tea	2.28 ± 1.25	2.13 ± 1.26	0.92
Misugaru	1.82 ± 1.04	1.72 ± 1.02	0.77
Vinegar drinks	1.37 ± 0.76	1.26 ± 0.67	1.21
Grain drinks	1.89 ± 1.20	1.80 ± 1.24	0.59
Maesil drinks	1.71 ± 1.00	1.73 ± 0.94	-0.19
Honey tea	1.48 ± 0.86	1.60 ± 0.79	-1.10
Rice drinks	1.58 ± 0.90	1.53 ± 0.84	0.42
Jujube drinks	1.18 ± 0.57	1.26 ± 0.70	-0.96
Water	4.04 ± 2.24	3.74 ± 2.27	1.02

¹⁾ Mean ± S.D

*p<0.05

은 음료는 체중조절의 시도 경험이 있는 그룹은 생수, 경험이 없는 그룹은 커피로 응답했으며, 가장 섭취빈도가 낮은 음료는 두 그룹 모두 인삼차라고 응답했다. 체중조절의 시도 경험이 있는 그룹이 시도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커피의 섭취빈도가 낮았고 녹차(p<0.05)의 섭취빈도는 유의적으로 높았다.

(8) 담배의 섭취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

담배의 섭취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는 <Table 11>과 같다. 흡연자는 커피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고 비흡연자는 생수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Kim 등(2006)의 선행 연구에서 흡연군이 커피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섭취빈도가 가장 낮은 음료는 두 그룹 모두 인삼차로 나타났다. 흡연에 따른 섭취빈도를 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커피(p<0.001), 녹차(p<0.05), 식혜(p<0.01), 수정과 (p<0.05), 미숫가루 (p<0.05), 매실음료(p<0.01), 꿀차(p<0.05), 쌀음료(p<0.01), 생수(p<0.01)의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두 그룹 모두 식혜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섭취빈도는 낮았으며, 흡연자는 커피의 기호도가 높은 만큼 섭취빈도도 비흡연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able 11> Frequency of intake on beverages by smoking

Variables	Smoker	Nonsmoker	t-value
Coffee	5.30 ± 1.16 ¹⁾	3.59 ± 1.63	8.11***
Green tea	3.93 ± 1.23	3.39 ± 1.49	2.46*
Black tea	2.00 ± 1.40	1.65 ± 1.08	1.49
Sikhye	2.25 ± 1.03	1.71 ± 0.91	3.40**
Sujeonggwa	1.65 ± 0.89	1.31 ± 0.67	2.29*
Yuja tea	1.65 ± 0.83	1.69 ± 0.93	-0.24
Ginseng tea	1.25 ± 0.63	1.15 ± 0.56	1.08
Dunggulre tea	1.93 ± 1.29	2.05 ± 1.53	-0.47
Yulmu tea	2.25 ± 1.03	2.23 ± 1.29	0.08
Misugaru	2.15 ± 1.25	1.73 ± 0.98	2.40*
Vinegar drinks	1.27 ± 0.75	1.34 ± 0.73	-0.53
Grain drinks	1.88 ± 1.16	1.86 ± 1.22	0.08
Maesil drinks	2.28 ± 1.30	1.62 ± 0.89	3.06**
Honey tea	1.88 ± 1.27	1.45 ± 0.74	2.05*
Rice drinks	2.05 ± 1.24	1.48 ± 0.78	2.82**
Jujube drinks	1.35 ± 0.74	1.18 ± 0.59	1.36
Water	4.85 ± 2.29	3.79 ± 2.21	2.79**

¹⁾ Mean ± S.D

*p<0.05, **p<0.01, ***p<0.001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건강관련 요인이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와 섭취빈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인천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사항을 조사한 결과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과체중과 비만이 많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저체중이 많았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운동을 적게 하고 운동시간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체중조절을 시도해 본 경험도 높게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횟수는 남녀 모두 한 달에 1-4회 섭취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담배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건강관련 요인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과체중과 비만그룹이 식혜와 수정과의 기호도가 높았다. 체중조절에 관심이 매우 많은 그룹은 녹차, 유자차, 둥굴레차의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음료섭취 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 그룹이 커피의 기호도는 낮았고 녹차, 인삼차, 둥굴레차, 식초음료와 생수의 기호도는 높았다. 술을 많이 마시는 그룹이 식초음료와 대추음료의 기호도는 낮았고 생수의 기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흡연자가 커피와 수정과의 기호도는 높았으나, 둥굴레차의 기호도는 낮았다.

3. 건강관련 요인에 따른 커피와 전통음료의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 정상과 과체중 그룹이 수정과의 섭취가 높았다. 운동을 많이 하는 그룹은 커피를 적게 섭취하였으나, 식혜의 섭취는 높았다. 체중조절에 관심이 많은 그룹이 녹차의 섭취가 높았다. 음료 섭취 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룹이 커피의 섭취는 낮았으나, 녹차와 둥굴레차의 섭취는 높게 나타났다. 체중조절의 시도 경험이 있는 그룹이 녹차의 섭취빈도가 높았다.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그룹이 꿀차의 섭취가 높았으며, 흡연자는 음료 중 커피의 섭취가 가장 높았고 비흡연자는 음료 중 물의 섭취가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식생활 변화와 함께 과거에 비해 신장과 체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대학생 87.8%가 음료를 마실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커피의 기호도와 섭취빈도는 낮은 반면 전통음료의 기호도와 섭취빈도는 높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품의 전통음료 개발 및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Chaib SI. 1994. Analysis about the Lifestyle of the New Generation. *Journal of management*, 38(1):93-107

Cho KJ, Kang HJ. 2004. A Study on the Food Habits and Dietary Intakes of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Area. *Korean Journal of Food Culture*, 19(1):70-82

Cho WH. 2001. Trend and Product Development of Traditional Beverage. *Korean Journal of Cookery Science*, 17(6):651-656

Chung SJ, Kim JH, Lee JS, Lee DH, Kim SH, Yu CH. 2004. A Suggestion to Develop a Nutrition Policy on Food and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Systems for Fast Food and Carbonated Soft Drinks in Korea. *Korean Journal of Nutrition*, 37(5):394-405

Ha TS, Park MH, Choi YS, Cho SH. 1999. A Study on Beverage Consumption Pattern Associated with Food and Nutrient Intak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5(1):21-28

Han ES, Rho SN. 2004. An Analysis of Consumption and Preferences of the Korean Traditional Drinks by Women in Different Age Group.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14(5):397-406

Jung YW. 2006a. A Study on the Factor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in Coffee Hous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2(4):1-17

Jung YW. 2006b. A Study on the Positioning Strategy of Coffee house.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spitality Administration*, 15(1):269-289

Kim BR, Han YB, Chang UJ. 1997. A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Weight Control, Diet Behavior and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2(4):530-538

Kim CI. 1999. The Change of preference to traditional beverage for the college students around the Chungnam area. Abstract of 1998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Nutrition. pp 94

Kim HJ. 2004. The survey of beverage preference and sales trends. Masters degree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 1-2

Kim KW, Lee MJ, Kim JH, Shin YH. 1998. A Study on Weight Control Attempt and Related Factors among College Femal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3(1):21-33

Kim MH, Bae YJ, Sung CJ. 2006. A Evaluation Study on Nutrient Intake and Diet Quality of Male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Packyear in Korea. *Korean Journal of Nutrition*, 39(6):572-584

Kim YR. 1999. A Study of Alcohol Drinking Styl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5(2):24-33

Lee HJ. 2001. (A) Socio-cultural investigation of beverages and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beverage consumption. Masters degree thesis. Yonsei University. pp 1

- Lee HS, Lee JA, Paik JJ. 1998. A Study of Food Habits, Physical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College Students in Chuncheon.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3(1):34-43
- Lee MY, Kim JS, Lee JH, Cheong SH, Chang KJ. 2001. A study on Usage Dietary Supplements and Related Factors in College Students Attending Web Class via Internet. Korean Journal of Nutrition, 34(8):946-955
- Lee YJ. 2005. Comparison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IPA) of the Quality of Korean Traditional commercial Beverages.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21(5):693-702
- Park MR. 1999. A Study on Beverage Consumption Pattern and Imag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9(4):501-513
- Song KH. 1999. A Study on Food Habits , Beverage Intake and Body Fat Content in College Students. Abstract of 1999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Nutrition. pp 112
- Yang KM, Park CS, Jang JH. 2004.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Dietary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Kyungsan Are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6):55-72
- You SO, Im ES. 1997. A study on Body Weight and Health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1(2):83-93
-
- (2007년 7월 18일 접수, 2007년 8월 24일 채택)